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1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음 8월 11일) 제21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 288-9700

##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틀째... 평화를 위해 손 잡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 완전한 비핵화... 남북, 평양합의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양측 정상 합의에는 ▲핵시설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 협력 ▲남북군사위원회 가동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보건의료 협력 즉시 추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협력 ▲연내 동서철도·도로협력 착공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께 백화원 영빈관에서 추가 회담을 가진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우선 동향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조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

이들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이 합의에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우발적 무력충

**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정상회담  
▶ 관련기사 2·3면

정상 합의에 영변 핵시설 영구적인 폐기 남북군사위원회 가동·이산가족 면회소 개소 보건의료 협력 즉시 추진·동서철도 착공 등 김정은 서울 방문, 남북관계 획기적 전기 마련

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

남북 정상은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관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준수하고 이행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기존 명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산가족들의 상시 상봉을 위한 상설면회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서로 간 교류 및 협력 증대를 위해선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협력,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며 "가까운 시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 방문이다. 남북관계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줬고, 핵무기·핵위협 전장도 없는 한반도에 뜻을 같이했다"며 "온 겨레와 세계 열망에 부응했다. 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뤄져갈 것이며 평양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대화가 빠르게 재개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도록 우리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세계는 오랫동안 잊혀지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담겨오는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고 겨레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서서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 2+2 회담 후 평양공동선언

남서훈·北김영철 배석 1시간 5분 진행 후 서명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둘째 날인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두 번째 회담을 하고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회담은 역대 남북 정상이 회담했던 백화원영빈관에서 이뤄졌다. 전날 첫 회담은 김 위원장의 집무실 있는 노동당 중앙청사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리설주 여사와 이날 오전 10시 백화원영빈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입구에서 김 위원장 내외를 맞이한 문 대통령은 복도를 걷는 동안 환담을 나눈 뒤, 오전 10시55분부터 회담을 시작했다.

두 번째 회담은 2+2 형태로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측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했다.

전날 우리 측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북측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임석했던 3+3 회담에 비해 배석자가 줄었지만, 일각의 관측과

달리 단독회담은 아니었다.

회담은 전날보다 짧은 1시간가량 진행돼 오전 11시10분 종료됐다. 이어 회담 결과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기 위해 펜과 책상이 마련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전 11시24분 문 대통령은 김종천 청와대 비서관이 건넨 네임 펜으로, 김 위원장은 김 제1부부장이 건넨 만년필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관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이 이뤄졌다.

두 정장은 20분 후 시작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평양선언을 생중계로 알렸다. 김 위원장부터 준비된 원고를 읽었고, 남북 고위급 인사의 박수가 이어졌다.

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에는 우리 측에서 조영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과 북측에서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도열한 가운데 /김진성 기자

제99회 전국체육대회 THE 99th NATIONAL SPORTS FESTIVAL 2018. 10. 12(금) - 18(목) 7일간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THE 38th NATIONAL PARA GAMES 2018. 10. 25(목) - 29(월) 5일간

주 개최도시 익산

**‘시민과 소통하는’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는 시민 모두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국가식품플라자 FOODPOLIS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